

7월8일 월요일

9장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본장 1~6절은 지혜에 대한 예찬이며, 마지막 부분인 13~18절은 또 다른 여인인 미련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와 미련의 초청에 대하여 결단하는 삶을 매일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혜로운 삶, 즉 영생을 얻는 삶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명철이니라."

10장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 1

본장에서는 입과 말에 대한 교훈이 가장 많습니다. 때와 장소를 분별하는 적절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장에서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천천히 읽으며 정리해 보세요.

- 1) 의인의 입술:
- 2) 악인의 입술:

11장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 2

본장 1-3절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관련된 교훈들입니다. 정직한 저울과 공평한 추는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할 부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세요.

12장 지혜로운 자의 생각과 태도

저자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를 언급합니다. 1절과 1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7월9일 화요일

13장 말씀을 듣는 사람

본장은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대조시키는 잠언 특유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1-3, 10, 13, 18절에서는 훈계와 꾸지람을 듣는 것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적과 책망을 듣고 삶을 교정하고 있나요? 마음이 높아져서 말씀을 선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

14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

본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 기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2, 26~27, 31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1) 2절: ()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 2) 31절: ()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15장 지혜로운 자의 언어생활

본장에도 말(언어)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1~2, 4, 18, 23, 28절). 특별히 본장에서는 '말의 대답'을 다룹니다. 다른 사람의 질문이나 요구에 어떻게 말로 반응하는가는 중요합니다.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을, 4절에서는 온순한 혀를, 18절에서는 분을 쉽게 내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말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지 돌아보세요.

16장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함

본장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경외함, 교만과 겸손, 경제생활, 왕에 대한 말씀, 지혜 그리고 악과 정직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는, "()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고, ()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성도의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7월10일 수요일

17장 하나님 백성의 복된 가정

계속해서 저자는 신앙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 6, 21, 25절에는 가정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고기를 먹을만큼 부유하다고 해도,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한 것이 나으며(1절), 자식의 존재는 부모의 즐거움이지만, ()한 자식은 부모의 근심과 고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21,25절)

18장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 1

본장에 기록된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모두 찾아보세요. 1)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2)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한다. 3)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다. 4)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다.

19장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 2

본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즉 참 지혜는 어떻게 실생활에 드러나는지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에서 "()는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하면서 타인을 향한 인자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주위에 돌아볼 지체들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20장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본장은 잠언의 어느 장보다 다양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특별히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24절). 또한 하나님의 등불은 인간 영혼의 깊은 곳, 숨은 동기들까지 정확하게 비추고 아십니다(27절).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정직한 마음과 동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7월11일 목요일

21장 하나님의 주권

본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1절)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지혜나 명철, 모략이나 마법이 당할 수 없습니다(30,31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와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성품으로 가정을 온전히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2장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본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와 경외함의 보상은, ()과 ()과 ()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상은 단지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 영원이라는 관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3장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본장은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특히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술 취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에 잠긴 자, 혼란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29-30절)

24장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며

본장 1절, 17-19절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기록합니다. 1) 악인의 형통함을 () 말라. 2) 네 원수가 넘어지거나 엎드려질 때 ()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7월12일 금요일

25장 지혜는 마음을 지키는 것

1)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고 교훈합니다. 2) 28절에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26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착각

본장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잘못 말하는 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런 자들을 모두 악한 자로 규정하는데,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2, 16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착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착각은 무엇인가요?

27장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본장 6절, 9절, 10절, 17절에서, 친구의 아픈 책망이 그 마음의 충성됨과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을 분별하여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우리 시대도 아픈 말을 들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 하느니라."

28장 하나님 백성의 경건한 삶

본장에서 어리석은 악인은 거짓된 방법으로라도 부자가 되려 하고(6,18), 고리대금으로 돈을 벌고(8) 빠른 시간에 재물을 모으려 하며(20), 재물 얻는 것에 급급해 가난이 찾아올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맙니다(22).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1) 4,7,9절: ()을 삶의 중심에 두고 2) 13절: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고 버려야 하며 3) 14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4) 25절: 오직 ()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7월13일 토요일

29장 책망이 주는 유익

본장 1절에서는, 만약 내게 유익이 될 책망을 듣고도 목이 곧아서 고치지 않는다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아침은 내 귀에 달게 들려도 결국에는 해롭습니다.(5절). 채찍과 꾸지람으로 대변되는 징계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지혜를 준다는 점에서 유익합니다(15,17절).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인지, 쓴 말과 단 말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귀에 달고 듣기에 좋은 말에 쉽게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경책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달게 받을 수 있는 들을 귀와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장 아굴의 잠언

본장 7-9절에는 아굴의 기도제목이 나옵니다. 1) ()과 ()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2)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31장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본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인 왕에게 훈계한 내용입니다. 어머니는 왕인 아들에게 왕의 직분을 망각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합니다(2-7). 그 핵심은 음녀의 유혹과 술의 남용입니다. 또한 잠언 마지막 부분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송으로 마무리 됩니다. 이 본문은 지금까지 잠언이 강조했던 지혜에 대한 결론으로서,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핵심을 정리해주려는 의도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정을 복되게 하는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지혜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30절)